

### 미국식 개방형 이사제 도입시

# “건학이념 못살린다” 촉각

‘사립학교법 개정안’ 불교·타종교계 반응

열린우리당은 10월 17일 미국식 ‘개방형 이사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확정 발표했다. 초기에 언급됐던 ‘교원 임면권의 학교이관’ ‘학교운영위원회의 법정기구화’는 제외됐다. 아직 국회 상임위 교육위원회 조정과 본회의 통과가 남아 있어 법이 발효되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이라는 의견도 적지 않다.

열린우리당은 10월 17일 미국식 ‘개방형 이사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확정 발표했다. 초기에 언급됐던 ‘교원 임면권의 학교이관’ ‘학교운영위원회의 법정기구화’는 제외됐다. 아직 국회 상임위 교육위원회 조정과 본회의 통과가 남아 있어 법이 발효되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이라는 의견도 적지 않다.

불교계도 사립학교법이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면서 개정법안에 대한 우려와 기대가 교차하고 있다. 그러나 공식적인 반응이나 움직임은 없는 상태. 다만 법 개정으로 건학이념을 지키는데 문제가 생길수도 있다는 데 대한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는 것만은 사실이다. 사립학교법 개정안에 대한 불교와 다른 종교계의 반응을 살펴본다.

#### ●사립학교법은?

사립학교법이 제정된 것은 1963년이다. 당시에는 교육과 관련한 투자를 국가가 전담하기 어려웠던 시기였다. 때문에 개인의 학교설립을 장려하기 위해 사학재단의 운영권을 모두 보장해 사실상 개인의 사유물로 인정하는 수준의 사립학교법이 만들어졌다. 현재 우리나라

#### ●불교 중립학교 현황과 반응은?

불교계가 운영하는 사립학교는 모두 33개교(2003.10 광동중 이학송 교장 조사자료)인 것으로 파악된다. 조계종은 산하의 13개 학교를 거느리는 학교법인 동국대학교, 중앙승가대를 운영하는 승가학원, 지지사의 능인학원, 봉선사의 광동학원, (재)안양원의 보문학

### 불교 공식입장 유보 천주교 반대성명 발표

### 개신교 국가배상·헌법소원·학교폐쇄 불사 방침

라는 중등교육의 50% 이상, 대학교육의 75%(학생수 기준)를 사립학교(재단 1500개, 학교 2000곳)에 의존하고 있다.

사립학교법 개정을 주장하는 열린우리당과 시민단체들은 일부 사학재단의 고질적인 전횡과 비리, 재단설립자 일가의 족벌경영과 세습문제 등의 근절을 법제적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다.

원 등이 있다. 천태종은 금강불교학원, 진각종은 회당학원, 총지종은 부산에 대동학원 등의 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사립학교법 개정과 관련해 동국대 상임이사 영배 스님은 “사립학교 가운데 문제가 되는 것은 주로 개인이 설립한 곳들이 대부분인데 종교계가 설립한 사립학교까지 도매금으로 취급하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하며 중

교계 학교를 제외하는 보완적 법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능인학원 이사장 장윤 스님은 “불교계 중·고등학교의 경우 공립학교 이상으로 엄격하고 투명한 경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법이 개정된다고 해서 크게 달라질 게 없을 것”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조계종의 입장은 아직까지 원론적인 수준이다. 총무원 관계자는 “사학 재단이 사사로운 이익을 취하는 것은 막아야 하지만 건학이념이 훼손되는 것은 안된다”는 것이 총무원의 기본적인 입장이라고 밝혔다.

#### ●타종교 반응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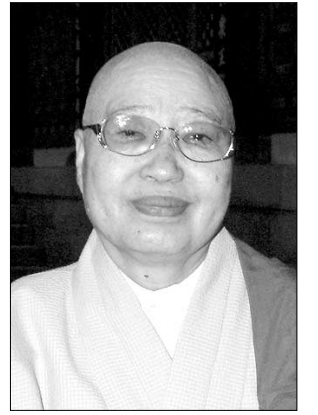
개신교와 천주교 등의 반응은 ‘결사적’이다. 전체 사립학교 가운데 기독교 재단학교의 비율은 중고교 400여개(25%), 대학 201개(73%) 이다.

9월 9일 열린 세미나에서 이들은 “사립학교법 개정안은 사학의 건학이념을 무시하고 법인이사회의 기능을 무력화 하는 법”이라고 규정했다. ‘선교의 사명’을 구현하기 위해 설립된 기독교계 사학의 존립을 위태롭게 한다는 것이다. 서경대 이사장 박용 신부는 “사립학교법 개정은 교육복음화를 막은 공산주의식 발상”이라고 주장했다.

한기총을 비롯한 보수적 개신교 단체들은 10월 4일 서울시청 앞 대규모 집회를 열어 사립학교법 개정 반대의 목소리를 높였다. 19일에는 조용기 한국사학법인연합회장 등 사학단체 대표들이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국가배상요구, 헌법소원을 거쳐 자신해 학교를 폐쇄하겠다”고 밝혔다. 천주교 주교회의도 20일 반대 성명을 냈다. 조용수 기자

### 한국의 비구니 스님 <24> 각림 스님

## 목숨 내걸고 정진 또 정진



“신도들에게는 관음주력도 시키고 절 수행도 하라 하는데 그레도 내게는 선이 첫째라. 선수행은 앉으나 서나, 죽으나 사나 해야 하는 것. 이생에 다 못하면 내생에서라도 해야 할 참가자의 사명이요.”

각림 스님(사진)은 1999년 상좌 혜옥 스님에게 봉덕사 도량을 맡기고 다른 상좌와 함께 하안거를 나려 서울 승가사선원으로 향했다. 세수 57세 이상은 받아 주지 않는다는 관례를 깨고 우겨서 들어갔다. 비장할 그 자세였다.

“그때는 참선하다 죽어야겠다 했지. 아무도 못 말려. 그리고는 해제를 하고 나왔어.” 그렇게 첫 번째 한 철은 별 탈 없이 마쳤다. “겨울에 다시 수덕사 경성암으로 방부를 들었는데 그만 한 달 만에 탈이 났지 뭐야. 병이 나서 그냥 나왔지.”

그런 스님에게 요즘 새로운 기쁨이 하나 생겼다. 지난해 7월 태어난지 하루 밖에 되지 않은 갓난 아기를 속초에서 데려와 키우는 일이다. 이름을 ‘도술’로 지은 스님은 도반들 모임에 나가거나 외부 신도들이 찾아오면 도술이 자랑에 시간가는 줄 모른다. “이렇게 거동하고 다닐 수 있

### 교도소 교화위원·비구니회 등서 활동

### 어린이집 위탁 받아 새싹포교 ‘박차’

노구를 돌보지 않는 무리한 정진 탓인지 뇌졸중으로 쓰러진 것이다. 그런 스님을 상좌들이 다시 봉덕사로 모셔왔다. 혜옥 스님은 “정말 가시는 줄 알고 얼마나 놀랐는지 모른다”고 했다.

그때가 스님의 세수 77세이던 해였다. 평소 늘 77살까지만 살면 인생의 연은 끝내리라던 스님은 가실 날, 시간까지 미리 정해두셨던 분이였다.

각림 스님은 거짓말처럼 평소 말씀하시던 그날 그 새벽 백짓장 같은 얼굴로 수차례의 고비를 넘겨가며 혜옥 스님과 상좌들의 애간장을 녹였다.

그렇게 밤을 새고 난 스님은 이틀날 오히려 정신도 밝아지고 싶었던 건강과 언어도 다시 되찾았다. 상좌들은 스님이 다시 태어난 것이라고 했다.

올 여름에는 중앙승가대에서 열린 세계여성불자대회까지 참가할 만큼 건강도 회복됐다. 불편한 거동에도 여전히 아침, 저녁 예불은 거르는 법이 없다.

는 것만으로도 부처님께 감사해요. 난 이제 내일 당장 숨이 멎어도 아쉬움이 없어요. 그냥 새 옷 갈아입는 거라 생각해요. 다만 내생에는 성불할 수 있기를 기도할 뿐이지.”

각림 스님은 1927년 황해도 해주에서 태어났다. 양주 회암사에서 은사 고근 스님을 모시고 출가. 동산 스님을 계사로 비구니계를 받았다. 이후 대성암, 석남사, 내원사 등 정국의 선방을 다니며 수행했다. 그러다 본격적으로 대종교회에 원력을 세우고 춘천 봉덕사 창건불사를 시작했다.

전법과 봉사활동에도 노력을 아끼지 않아 춘천교도소 교화위원, 전국비구니회 강원지회장으로 활동했다. 혜옥, 명관, 현옥, 창옥 스님 등 도제양성에도 힘을 기울였다. 93년 춘천시로부터 연꽃어린이집을 위탁받아 어린이들이 불법의 인연을 맺을 수 있도록 어린이 포교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조용수 기자



조계종 한마음선원이 10번째 해외지원인 캐나다 밴쿠버지원을 10월 10일 개원했다. 사진은 밴쿠버지원 개원위원회 데이프팅 모습.

## 한마음선원 밴쿠버지원 개원

### 10월 10일... 정기·특별법회 계획

조계종 한마음선원(원장 대행)이 열번째 해외지원인 캐나다 밴쿠버지원(지원장 혜봉)을 10월 10일 개원했다. 이날 법회에는 안양본원 주지 혜원 스님, 부산지원장 혜도 스님, 혜호 스님 등 150여 명이 동참했다.

혜원 스님은 이날 축사에서 “불교를 배운다고 하는 것은 먼저 내가 누구인지를 밝히는 것이고,

나를 밝히는 것은 나의 근본으로 돌아가는 것”이라며 “캐나다에서 부처님 가르침을 널리 전파하는데 밴쿠버지원이 앞장서 달라”고 당부했다.

한마음선원 밴쿠버지원은 2002년부터 일부 신도를 중심으로 법회를 가져오다 2003년 혜원 스님이 밴쿠버를 방문, 첫 법회를 열면서 개원 준비에 들어갔다. 매주 일요일 정기법회와 어린이법회, 매월 음력 초하루와 보름 특별법회를 병행한다. 1-604-582-8234 강유신 기자

## “종교적 성향 유전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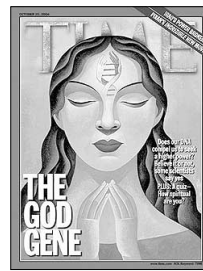
### ‘타임’ 지 커버스토리로 다뤄

‘종교의 기원’을 놓고 벌어졌던 ‘갑툭을박’이 최근 미국 사회에서 재현됐다. 미 시사잡지 <타임(Time)> 최근호는 ‘우리 유전자 속에 신은 존재하는가?(Is God in our genes?)’라는 커버스토리에서 종교의 기원을 둘러싼 서양사회의 논쟁을 소개했다.

이번 논쟁이 신을 종교의 기원으로 생각하는 서양종교의 ‘창조설’ 대신, 불교의 윤회사상을 기초로 유전자가 인간의 종교적 성향을 좌우한다는 새로운 가설을 증명하는 근거로 사용돼 눈길을 끌었다.

특히 이 잡지는 서양 과학계가 인간의 종교적인 성향을 유전적인 관점에서 파악하려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고 소개했다. 타임은 1979년 진행된 일란성 쌍둥이에 대한 연구가 종교적인 성향을 유전학적으로 설명하려는 첫 시도였다고 밝혔다.

미네소타 대학의 과학자들은 입양돼 각각 다른 환경 속에 자란 84명의 쌍둥이를 테스트한 결과, 둘 사이에



상당한 종교적 일치성이 발견된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이후 펜실베이니아 대학의 과학자들

은 종교적인 유전자를 인간의 종교적 성향뿐만 아니라 명상 등 종교활동을 하는 사람의 뇌의 움직임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실험결과를 보고했다.

타임은 이와 같은 서양종교의 연구 성과를 뒷받침하는 종교로서 불교, 특히 윤회설을 소개했다. 저명한 불교학자인 로버트 셔먼 교수(컬럼비아대)은 “불교에서는 오랫동안 ‘종교적인 유전자’를 전생으로부터 물려받는다”는 생각을 해 왔다”며 “이런 ‘종교적인 유전자’의 채택에 보편적인 믿음, 개방성, 관대함 등을 가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타임은 아직 불교의 윤회론이 과학적으로 검증된 것이 아니라는 단서를 달았다. 강유신 기자

# 大韓民國 寺刹은 悠久한 歷史와 燦爛한 文化를 간직하고 있습니다

이제 인터넷 사찰 Home page 開設로 많은 衆生을 구제하고 부처님의 가피를 세계에 전파하십시오. 貴人이 最先을 다하여 돕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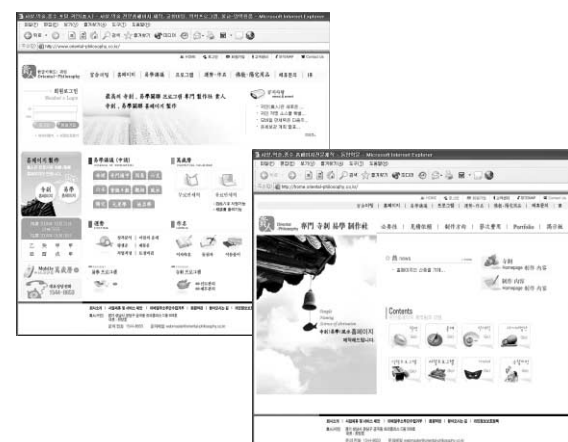
귀인(貴人)은 最高의 寺刹Home page를 만들어 드립니다.

貴人 Oriental-Philosophy 專門 寺刹 易學 制作社

귀인의 홈페이지는 여러분의 생각을 한차원 높여드립니다

### 貴人 寺刹 Home page 特別 行事期間 (10월 27일 ~ 11월 11일) 特典

1. 最新 업그레이드된 貴人 作名 3.0 1set 無料支給
2. Mobile 萬歲曆 1set 無料支給
3. 貴人 有料 萬歲曆 3년 使用權 無料支給
4. 土亭秘訣, 黨舍柱, 오늘의 운세, 觀相, 꿈해몽 3년 無料링크
5. 日辰 달력 무료링크
6. 무료 이름풀이 3년 무료링크
7. 貴人에서 開發되고 있는 最高의 寺刹프로그램 (신도, 계부) 50% DC된 價格에 提供
8. 마지막으로 寺刹 Home page 계약시 13% DC해 드립니다.



야후(yahoo)에서 귀인, 네이버(naver)에서 동양학문이라고 검색해 보세요. www.oriental-philosophy.co.kr 한글인터넷주소 : 귀인, 동양학문, 신도관리, 사찰관리, 기문, 기문문답, 사주대전, 육효, 자미두수, 양택, 오운육기

●대표전화 : 1544-8653 대표 : 최 양호 H.P : 019-217-3505

